

4/26/26

설교 제목: 제자의 길: 자기 부정과 온전한 순종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0 장 34-42 절

**검을 주러 왔다(눅 12:51-53; 14:26-27)**

(마 10: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 10: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마 10: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 10: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 10: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 10: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상을 받을 사람(막 9:41)**

(마 10:40)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 10:41)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 10:42)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오신 목적을 피력하십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마 10: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사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눅 2: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눅 2: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눅 2: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눅 2: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 2: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눅 2: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눅 2: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런데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이라는 단어에 대한 유대인들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화평’은 히브리어로 ‘shalom’,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온갖 종류의 복을 기원할 때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야가 오시면 자신들이 고대하던 화평, 곧 외적인 화평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강국이 되고, 자신들은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본질적이고 내적인 화평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주기 위해 이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은 당신이 오히려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오신 목적이 불의를 정복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임을 시사하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셨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땅 위의 최악된 질서를 척결함으로써 그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세상은 메시아와 그의 통치를 완강히 거부하고,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사생 결단의 치열한 혈전을 벌릴 것입니다.

그 전투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빚어낼 결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이 가족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 10: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마 10: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가 반인륜적 종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 길 위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족과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서는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직면하게 될 핍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문맥 상 이 말씀은 그들을 가장 핍박할 자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동족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가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를 가장 핍박한 자들은 로마인이나 이방인들이 아니고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복음이 파괴적인 성향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접한 각 사람들이 부패한 심성과 반항적 기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불화하게’는 ‘둘로 나누다’는 뜻입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신자와 불신자가 서로 연합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로서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째, 모든 것에 우선하여 당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마 10: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본분이자 제일의 의무입니다.

둘째,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 10: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 놓아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모든 것을 무릎쓰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뒤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와 제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 대속을 위한 것이고, 제자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 예수님께 헌신과 충성을 바치기 위한 것입니다.

효력면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영원 효력을 지닌 단회적 사역인데 반해 제자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 지속적인 사역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는 도리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 10: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목숨'은 이 세상의 시한부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를 위해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참한 순교까지도 각오하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되 생명까지 희생하는 자는 다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상실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주 안에서 거듭 날 것이고, 재물과 시간은 축복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에 대해 언급하심으로 파송되는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마 10:40)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 10:41)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 10:42)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선지자, 의인, 제자는 모두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파송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한 지체로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은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환대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파송되어 핍박 받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짓된 평화와 죄악된 질서를 끊어내고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이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가장 측근인 가족들과 심한 갈등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복음이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죄악된 세상 간에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제자의 도를 요구하십니다.

당신을 세상 무엇 보다 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자기 부정'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있을 영광도 함께 약속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드린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드린 작은 헌신 하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시간, 물질, 그리고 생명까지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것들은 영원한 생명과 더욱 풍성한 하늘의 상급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세상 어떤 것들 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십자가를 통과한 순종의 자리에서 주어집니다.

이시간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